

시간여권 들고 떠나는 익산 골목기행

익산시, 28일 숨리근대역사문화공간서 '이리열차 시간정거장 어게인' 개최

시간여권 한 장으로 익산의 골목에서 펼쳐지는 시대 여행이 시작된다.

익산시는 오는 28일 숨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뉴트로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숨리골목기행: 이리열차 시간정거장 어게인'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마수리배움협회가 주관하는 생생국가유산사업으로 마련됐다. 생생국가유산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가유산 청의 공모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익산의 근현대사 유산을 시대별 '정거장'으로 재구성해, 참가자들이 '시간여권'을 들고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해설 중심의 유산 체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골목과 공간을 무대로 한 체험형·몰입형 콘텐츠로 구성돼 참여자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익산근대역사관, 시민역사기록관, 숨리역사문화공간 등을 배경으로 연극처럼 꾸며진 시대별 정거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920년대 정거장은 철도 개통 시절의 이리역을 재현한 공간으로 '청기백기' 놀이를 즐기며, 역사 속 승차권을 발견하는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1950년대는 영화관의 향수와 함께 포



오는 28일 익산시 숨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뉴트로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숨리골목기행: 이리열차 시간정거장 어게인'이 열린다.

스터 쿼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배우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거리극이 펼쳐진다.

1970년대 정거장은 안호를 해독하고 철도원의 이름을 추리하는 '철도원의 수첩을 찾아라'가 진행되며, 1990년대 정거장은 숨리역사문화공간 일대는 뉴트로 감성이 가득한 체험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주변에서는 거리에 술 '동동구리무',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랑 플래시몹', 서커스 공연 등 시민참여형 콘텐츠가 연이어 펼쳐지며, 도심 전체가 거대한 무대로 탈바꿈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마수리배움협회 누리집(마수리배움협회.com)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마수리배움협회(063-837-008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리열차 시간정거장 어게인은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골목과 공간에 담긴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시간 여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 시민도에대학 '라쿠Raku 특별강연·전통가마 소성' 성료

남원시가 운영하는 시민도에대학에서는 '라쿠Raku 특별강연 및 전통가마 소성'이 지역 작가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도예문화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라쿠Raku'로 널리 알려진 김영수 작가의 특별강연을 비롯해 전통가마 화입식과 소성 과정, 그리고 시민도에대학 수강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상설전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19일 '라쿠Raku' 특별강연과 전통가마 화입식은 라쿠소성 특유의 역동적인 불의 미학과 전통가마 소성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 시민과 도예 애호가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꿈꾸는 시민도에'가 상설전시는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남원시민도에대학 전시실에서 개최, 시민도에대학 수강생 62명이 제작한 총



80여 점의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되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도립미술관·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공동기획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분관에서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과의 공동기획전 '뽕기쟁이? 이응노+전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도립미술관이 전주미술사 연구를 위해 타시도 공립미술관과 협력하는 전시로써,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이응노의 전주시기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홍성군에서 태어난 이응노는 10대에 전북서화가 송태희에게 그림을 배웠다. 1925-1926년경 전주에 정착해 '개척사'를 설립해 1936년까지 약 12여 년간 충청도·전라도 작가들의 작품과 화보, 미술용품을 매개하는 화상이자 홍보·장식의 목적으로 사용되던 간판의 제작자 겸 작가들의 교류를 증대하며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연출자였다.

그동안 미술사에서 이응노는 프랑스 활동을 중심으로 조명됐고, 그의 전주시기는 '간판쟁이'로 그 역할을 축소해 해석해왔다. 이에 전북도립미술관과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은 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00여 점의 업서를 공동 연구해 그 성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전복을 넘어 한국근대미술사 정립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전북도립미술관·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공동기획전은 서울분관에서 사전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군산근대미술관, 민병헌 작가 초대전

24일~8월 10일 '민병헌 그레이' 개최

군산근대미술관(구 18은행)이 오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민병헌 작가 초대전 '민병헌 그레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촬영부터 인화까지 모든 과정을 손수 진행한 아날로그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작품 20여 점이 출품된다.

'아날로그 사진의 대가'로 불리는 그는 흑과 백 사이 무수한 회색조를 정교하게 조율하며, 사진 속에 서정적 감성을 녹여내어 왔다. 이런 직관적인 감성과 시선을 회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이른바 '민병헌 그레이(grey)'라는 독보적인 스타일로 완성됐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역시 빛과 원근을 일부러 배제하고 흐릿한 화면 속에서 피사체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동양화 혹은 추상화를 연상케 하는 고유의 회색 세계를 고스란히 선보인다.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은 작가의 대표 시리즈인 [Weed], [Deep Fog], [River], [Snowland], [Waterfall], [Sky], [Nude], [Bird] 등을 통해 자연과 일상 속 풍경들이 환상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년 넘게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우직하게 고수해온 민병헌의 사진은 단순한 기술적 재현을 넘어, 감성적 경험의 확장이다.



작가는 "결국 지나고 보면 내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가 낫더라고요. 제 작품은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다는 제가 찾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2021년 인터뷰)라고 말한다.

민병헌의 사진은 특정한 의미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을 고요하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전시는 그의 감각이 포착한 '아름다움' 자체를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군산=김만호 기자

'근대어때, 추억을 완주하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서 28~29일 근대역사 문화여행 진행

100년 전 완주의 시간 속으로 떠나는 문화여행이 펼쳐진다.

완주군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옛 감성으로 풀어낸 근대역사 문화여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대어때, 추억을 완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후정리 패산-쑈', '뮤지컬 <영웅> 갈라쑈', '근대유산 해설버스', '양곡 밀정 RPG 게임' 등 몰입형 체험과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구성된 공연들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완주군 삼례읍 일원의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해 체험·교육형 관광 콘텐츠로 가득 채워진다.

근대 먹거리존, 로컬푸드 장터, 후정리 근대 체험관, 추억의 유람극단, 만요공연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할 예정이며, 근대유산 해설버스 운영을 통해 개별 방문이 어려운 대간수로, 금의습지 등을 찾아 근대 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서 근대문화유산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공간을

탐방하며 삼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소정의 기념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참여의 재미를 더한다.

아울러, 완주의 역사를 담은 보부상 근대 퀴즈마당, 삼례백년영사관(무성영화 및 아카이빙 영상 상영), 후정리 근대체험관(포토존·의상 체험 등)은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히 재현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에 선정된 논산·부여·익산·완주 4개 시·군의 공동 홍보관도 함께 운영되며, 완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장터와 후정리 근대체험관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관광경제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근대문화유산을 현대적 감성과 융합해 완주만의 체류형 관광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걸음"이라며 "완주의 근대문화 자산을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